



서른세번째 이야기

Heuristic – Fundamental – Reli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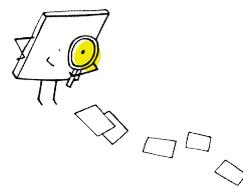
[친밀하심을 따라 ⑱-장로 장립]



정원만 장로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를 유난히 강조하던 중학교 때 선생님이 기억난다. 왠지 존경을 강요하는 느낌이 들었었다. 사실 나는 초, 중, 고, 대학 시절 존경하는 스승을 딱히 찾지 못했다. 스승도 싹수가 좋은 제자를 고르고 싶은 것이 당연하니, 좋은 스승의 눈에 들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그럴지도 모른다. 그 시절에 나는 예수님을 스승 삼아야 한다는 교훈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다. 물론 귀 기울여 심각하게 듣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오랫동안 예수님은 내 곁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강했었다. 스승이라는 단어를 ‘존경하고 닮고 싶은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기에 학교에서도 존경하는 스승을 못 찾는 주제에 ‘감히 사람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여겼던 것 같다. 존경은 하지만 닮을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승일 수 없다고 여겼다. 하지만 존경하고 닮아가려면 먼저 그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무지했기 때문에 생긴 편견이었다.

그렇다면 현재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삼고, 그의 제자로서 그분을 만나고 있나?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점은, 좋은 스승이 나를 눈에 들어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기다려 주셨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그분은 스승의 자리에서 내려와, 동역자이자 친구로 나를 받아 주셨다는 점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는 것과 비교할 때 그분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었다. 특별히 16년 동안의 BEE 세미나와 BEE K.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자리잡고 확고해졌다.



이 과정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Heuristic”이다. ‘경험적’, ‘발견적’이라는 의미의 단어 “Heuristic”은 2020년까지 나의 지난 10여 년을 대표하는 단어로 할 수 있다. 목표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명확한 알고리즘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면 무엇이든지 과감하게 도전하고 시도해 보아야 한다는 의미였고, 시도하는 기간이었다. “Heuristic”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 여정에 몇 가지 원리와 비결이 작동하는 듯하지만, 결코 기계적이거나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기다려 주시지만 방관하지도 않으시는 그분이 늘 가까이 계셨다는 경험적 결론은 무척 강력한 인상과 믿음을 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2021년을 “Fundamental”로 요약할 수 있게 된다. 기본과 근원을 다지는 기간이었다. 올해 초 ‘모세 오경’ (성경에 답하라 1권) 세미나를 통해 말씀에 깊이 빠져들었던 즐거움을 다시 되새겼다. ‘성경에 답하라’ 시리즈를 품었던 첫 마음에 담긴 “왜”와 “무엇”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었다.



장로사관학교 훈련

더불어 올해 장로사관학교 훈련을 통해 교회 공동체와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까이 접하며 예수님이 결국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근원적인 질문을 할 수 있었다. ‘풍성함’과 ‘부르심’은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었다. ‘풍성함’은 전적인 은혜를, ‘부르심’은 사역에 담대하면서 동시에 자유로운 상태로 이해되었다. ‘풍성함’과 ‘부르심’은 2022년을 바라보는 마음에 평안을 전해주었다. 그동안 몇 차례 새로운 10년을 위한 계획을 세워왔지만, 2022년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계획 세우기를 그만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은 “Reliance”, ‘의존’이기 때문이다. 10년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덧없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계획과 실행에 얽매어 기보다는 인도하심에 따르겠다는 ‘의존’이 내가 취할 바른 자세, 바른 방향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스승이 되어 주시고, 동역자로 세워 주시고, 친구로 삼아 주시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닮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 전적인 ‘의존’이라는 방향을 설정하고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왠지 뿌듯하다. “Reliance”는 ‘사역에 앞서서 말씀, 말씀에 근거한 기도’라고 스스로에게 타이르듯 나지막하게 반복해서 말해본다.

[글쓴이: 정원만 장로 정리: 김종영 편집: 최선]



선교지  우간다



[우간다 국장]

좌우에는 우간다 영양(Uganda Kob)과 국조인 왕관 두루미, 방패에는 빅토리아 호수를 상징하는 푸른색 가로줄 무늬, 아래에는 우간다의 자연과 문화를 상징하는 태양과 전통 북, 대지의 가운데에는 국토의 중앙부를 통과하여 북서쪽으로 흘러가는 나일강을 상징하는 푸른색 세로줄 무늬, 나일강의 좌우에는 우간다의 최대 수출 작물인 커피나무와 면화가 있다. 그리고 맨 밑의 문구에는 ‘For God and My Country (하나님과 나의 나라를 위하여)’라고 쓰여있다.

[출처: 우간다 개황(2020)/ 주 우간다 대한민국 대사관]

BEE 소식

1. 2021년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와 순종함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고 이웃과도 그 친밀함을 나누는 한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17:21).”

2.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 준비된 겨울방학 특강! '상한 마음의 치유', '교리론2', '성경을 펼쳐라2' 지금 홈페이지로 Go Go~

입소문이 자자한 BEE Korea

겨울방학 특강

상한 마음의 치유 : 1월 4일 ~ 2월 22일 (선수과목 없음) 30,000+택배비(4,400)

교리론2 : 12월 13일 ~ 2월 28일 (선수과목 갈라디아서) 40,000+택배비(4,400)

성경을 펼쳐라2 : 1월 8일 ~ 2월 26일 (선수과목 없음) 35,000+택배비(4,400)

